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6일

CUOMO 주지사,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카렌탈 회사들과 협력

12,000여 대의 자동차가 뉴욕 메트로 지역에 재배치

추가 5,000대 추진 중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허리케인 Sandy 여파 후의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뉴욕커들에게 교통 옵션을 보장하기 위해 카렌탈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주무부는 12,000여 대 자동차의 뉴욕 메트로 지역 재배치를 촉진하였으며 추가 5,000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치로 소유 자동차가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뉴욕커들의 수요가 충족될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많은 뉴욕커들이 일과 일상 기능을 위해 의존하는 차량을 잃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카렌탈 회사들은 높은 자동차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본인은 그들의 신속한 대응에 찬사를 보내며 다른 렌탈 회사들도 이 복구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Enterprise Rent-A-Car, National Car Rental 및 Alamo Rent A Car의 소유주인 Enterprise Holding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입은 고객들의 교통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 12,000여 대의 추가 차량이 뉴욕 메트로 지역에 재배치되고 다른 5,000대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회사들은 또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 26,000여 건의 보험관련 카렌탈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카렌탈 회사들도 동참할 것이 기대됩니다.

한편 수 만대의 승용차와 트럭이 가능한 한 빨리 Eastern Seaboard에 재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카렌탈협회(ACRA)는 주무부의 Marcos Vigil 차장과 함께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과는 직장 또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대체 차량이 절실한 소비자들에게 차량 렌탈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렌탈 회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과는 이러한 진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취급되도록 하기 위해 렌탈카 업계와의 조율을 지속할 것입니다.

Korean

렌탈카 회사들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에서 또는 1-800-697-1220에 전화하여 소비자보호과에 소비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